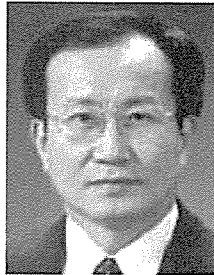


재활용 뉴스

재활용 뉴스

환경부 장관으로 이치범씨 내정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장,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등을 역임한 후 현재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인 환경운동가이자 경영 혁신에 성공한 탁월한 경영자로서 뛰어난 추진력과 조직관리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끊임없는 경영 혁신을 추진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1위, 공공기관 혁신우수기관 등으로 변신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다년간 축적된 환경관련 경험 및 전문성과 우수한 조직관리능력을 바탕으로 조직을 원만하게 이끌면서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등 국민생활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등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1954.9.25(52세), 충남 예산

-학 력-

- 서울고(74)
- 서울대 독어교육과(78)
- 서울대 철학과(81)
- 서울대 철학석사(83)

-주요경력-

-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03.10-현)
-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03.6-03.9)
-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02.2-02.11)
-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업·사업지원이사(98.5-02.3)
-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회 부위원장(98.1-98.5)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장(93.3-97.12)
- 광운대 강사(88.3-93.2)
- 인천대 강사(83.3-84.7)

초과승인제도 도입 재활용산업 자금지원 증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국내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폐기물의 적정처리 촉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재활용산

업육성자금 2005년도 예산 700억원 전액을 차년도로 자금이월 없이 100% 지원완료 했다고 밝혔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용자지원사업은 1994년 예산 100억원으로 시작한 후 2004년까지 매년 차년도로 자금이 이월되어 왔으나 2005년에는 초과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350억원까지 초과 승인할 수 있었다. 2005년도 대여율은 2004년보다 24%(247억원) 증가했다. 초과승인제도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당해예산을 초과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승인이 이루어지는 기존 용자방식과 달리 은행권의 '지불준비금 제도' 처럼 업체의 중도 인출 포기 등 인출 성향을 감안하여 초과 승인함으로써 정책자금 관리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효율성을 추구한 행정혁신 사례로 볼 수 있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에 대한 학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용자지원금액 1원이 증가할 경우 재활용업체 매출액은 약 3.0974원 증가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를 적용하면 「초과승인제도」로 인한 재활용산업 매출액 증가분은 2005년도에 약 76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신탁운동 활성화 법률 제정

환경부 및 문화재청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국민신탁법)」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매입·보전하는 국민신탁운동이 본격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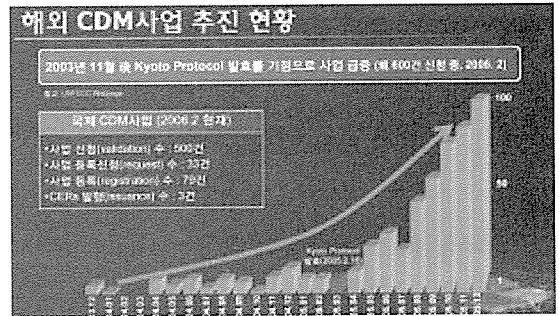
국민신탁운동은 “국민신탁법인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는 운동”으로 영국에서는 1895년부터 시작되어 1907년 특별법(National Trust Act) 제정 이후 활성화되었으며, 현재 미국·호주·일본 등 3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국민신탁법’이 제정됨으로써 (사)한국내서

널트러스트, (재)무등산공유화재단 등 민간단체 차원에서 법률적 기반없이 추진되었던 국민신탁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법률은 국민신탁운동을 하는 법정법인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을 설립토록 하고, 동 법인에서 시행하는 보전재산의 매입·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매립가스 이용 CDM 사업 본격화 연 70만 CO₂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대표적 환경친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규모 매립가스의 자원화를 통한 온실가스(메탄가스) 감축분에 대해 CDM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공사는 매립지내에서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매립가스(약 800Nm³/분)를 대부분 포집하여 발전연료로 사용할 계획으로, 수도권매립지 CDM사업은 교토 의정서가 규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구온난화 물질 중 하나인 메탄가스(매립가스 중 50% 이상 함유)를 감축하고, 그 감축분에 대하여 국제적인 인증과 유엔기후변화협약기구(UNFCCC)의 CDM 집행이사회(EB)에 등록을 거쳐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온산국가산업단지 일부 토양, 중금속으로 오염

온산국가산업단지의 일부 토양이 중금속으로 오염

되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연(亞鉛) 등 비철금속을 제조하는 배출업소 부지의 비소(As) 오염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20mg/kg)보다 최고 35배(703mg/kg) 높았으며, 원광석을 온산항에서 제조업체로 이송할 때 사용하는 도로주변에서도 비소(As)가 우려기준보다 최고 8배(166mg/kg) 높게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지하수의 경우는 일부 지점의 국지적인 오염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수질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의 『2005년도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결과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사용 이력과 배출업소의 사용원료 및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대하여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개 지점 중 5개 지점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6.3%의 기준초과율을 보였다.

이같은 기준초과율은 전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정기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초과율 2.2%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개황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오염의 우려가 높은 453개 지점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67개 지점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초과율 14.8%)하였다.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는 환경부가 토양·지하수오염취약지역을 조사하여 오염토양과 지하수를 정화하고, 국가 토양·지하수 환경정책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공단에 대한 조성시기와 입주업종 등을 평가하여 토양·지하수 오염우려가 높은 25개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04년부터 조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성남 중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 보급

성남시 중원구는 쾌적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마을 환경을 위해 구 관내 단독주택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보급에 나섰다.

용기함 설치는 지역주민들이 집 앞에 배출해 오던 음식물전용 쓰레기봉투가 고양이나 개 등이 봉투를 훼손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심한 악취와 해충 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구는 연초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함 설치대상 지역을 조사해 각 동별로 일반주택 지역 1~2개통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후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골목길 내 103개소에 수거 용기함을 설치했다.



대구시 위생매립장, 환경교육장소 각광

대구시위생매립장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폐기물 감량정책의 성과로 매년 일일 반입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매립장 운영으로 친환경정책의 새로운 교육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대구시위생매립장(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소재)은 1991년 개소 당시 일평균 폐기물반입량이 4,000톤에 달하였으나 2004년 1,676톤, 2004년 1,367톤, 2005년은 1,123톤으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매립장 운영방법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매일 복토(覆土)를 실시하고 악취제거 방역활동을 펼치는 등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매립공법을 적용하는 한편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진입로 및 순환도로 꽃길, 꽃동산을 조성, 매립장을 공원화 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특히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현장에 차수시설을 설치하여 집수관로를 통해 저류조에 보관

후 매일 일정량을 달서천환경사업소로 이송처리하는 등 매립장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민간자본 230억원을 유치하여 매립가스 처리시설을 건립중에 있으며, 시설이 완공되면 2006년 10월부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 약 130Nm³/min을 향후 20년간 안정적으로 포집·정제하여 중질 가스를 생산, 지역난방공사로 공급할 계획이다.

환경관리공단, 환경보전홍보대상 공모전 개최

환경관리공단은 대국민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환경부 후원으로 환경보전홍보대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1996년 이후 11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2003년부터 작품접수, 심사 등 공모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국민에게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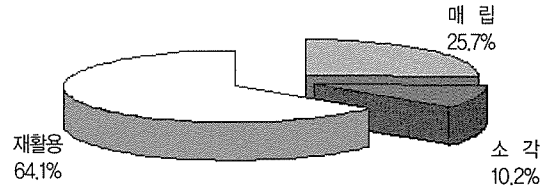
공모분야는 TV캠페인(스토리보드 및 동영상), 신문·잡지광고 및 사진(필름 또는 디지털) 등 3개 부문이며, 공모주제는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현장, 환경보전 활동, 아름다운 자연환경, 환경과 인간의 공존, 환경보전 활동, 오염현장 고발 등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9일까지 전용 웹사이트(www.emcpr.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상식과 전시회는 6월 환경주간에 개최할 예정이고, 수상작은 환경보전의식을 제고를 위한 홍보물로 제작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민 쓰레기 발생 줄었다”

서울시의 구 중에서 1인당 1일 배출량은 중구 3.61kg으로 가장 많고, 도봉구 0.6kg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또한 자치구별 1일 배출량은 송파구 869톤으로 가장 많고, 도봉구 230톤으로 가장 적었다.

처리방법은 64.1%가 재활용, 매립 25.7%, 소각 10.2%였다.

2005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1,170톤/일로 전년대비 4.3% 감소하였다.

처리방법은 64.1%가 재활용되고, 매립 25.7%, 소각 10.2%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2005년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1,170톤/일로 전년대비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민 1인당 1일 1.08kg을 배출한 것으로 전년도 1.13kg에 비하여 0.05kg이 감소한 것이다.

생활폐기물의 감소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감량정책(나눔장터의 운영,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결과, 시민들이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자치구별 쓰레기 발생량은 송파구가 869톤/일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며, 도봉구가 230톤/일로 가장 적었다. 아울러 1인당 1일 발생량은 서울의 도심권인 중구(3.61), 종로(3.25)가 평균배출량(1.08)을 훨씬 상회하였고 안정된 정주권인 중랑(0.80), 도봉(0.60), 노원(0.72), 은평구(0.70)는 1인당 배출량이 1kg에 훨씬 미달하였다.

처리방법은 64.1%가 재활용되고, 매립 25.7%, 소각 10.2%로 나타났다.

64.1%가 재활용되어 전년대비 11.4% 증가하였으며, 소각량은 1,139톤/일로 전년도 749톤에 비해 52.1%의 급격한 증가를 나타낸 반면, 매립량은 2,870톤/일로 전년도 4,498톤/일에 비해 36.2%가 감소하였다.

이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지 않고 100% 재활용하고 있고, 아울러 서울시에서 2005년 6월부터 마포구·중구·용산구 쓰레기를 광역 소각시설인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406톤/일)하고, 2004년 10월부터 시행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소각처리비용부담(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른 강남구의 소각량 증가(2004년: 168톤/일→2005년: 213톤/일)로 급격히 소각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매립지, 국내최고 환경교육장으로 각광



그동안 기피시설로 만 인식되어 왔던 수도권매립지가 폐기물 처리기술의 산실 역할과 친환경 테마공원인 '드림파크'로 변해가면서 최근 견학이 50% 이상 급증하는 등 수도권지역 최고의 환경교육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2004년 2만명에서 지난해 3만여명이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방문하였고, 특히 잔디축구장, 지압 산책로, 분수대 등으로 구성된 체육공원의 운영과 야생식물전시회, 국화축제, 썰매장 운영 등 계절별 다양한 테마행사에 37만명 등 총 4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초등학교생을 비롯한 학생이 52.7%로 가장 많았으며, 주부 등 일반인이 38.9%를 차지했으며, 계절별로는 10월(49.3%)과 5월(19.2%)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는 다른 곳과 달리 코스별 체험교육이 가능하고 폐기물의 위생매립에서 자원화 과정은 물론, 양묘온실, 야생초화원 등 환경테마공원으로의 변화 모습까지도 관찰할 수 있어 다양한 환경체험학습이 가능

한 특징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및 동남아지역 환경담당 고위 공무원들도 수도권매립지를 견학하기 위해 연간 500명이 방문하고 있어 국제적 교류협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재활용기술지도사업 확대 실시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중소 재활용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소를 위해 공사가 펼치고 있는 재활용기술지도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폐기물을 이용하여 중간제품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는 재활용사업체"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재활용 제품을 제조·가공·조립·정비·수집·운반·보관하는 중·소기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 재활용과 관련된 전 공정을 지도 대상에 포함시켜 재활용 전반의 기술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재활용기술지도사업은 사업기반이 취약하고 자체 기술력 제고능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 재활용기업들이 직면한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의 분야별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현장 기술 지도를 수행하는 것으로, 업체당 기술지도사업비 금액 한도는 1800만원, 지도기간은 8개월까지이다.

공사가 1999년부터 본 사업을 실시해온 동안, 기술 지도를 받은 업체들은 지적소유권을 26건 획득하였을 뿐 아니라 생산공정의 자동화,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

공사는 2006년 2월 6일부터 확대된 범위의 중소재활용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도사업신청을 받고 있으며, 재활용기술지도사업에 대한 신청서 교부 및 접수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기술연구실(032-560-1673)로 문의하거나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nvico.or.kr>)를 방문하여 「재활용기술지도사업」을 클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2006. 2.22)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 등의 설치대상 범위 및 그 설치기준을 2006. 4. 1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금번 완화되는 주요내용은 첫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의 범위가 종전에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거나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 이었으나, 금번 개정안에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폐기물발생량 산정기준에서도 재활용되는 양을 제외하는 등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조정하였다.

둘째, 산업단지, 공장, 관광단지 등 조성시 종전에는 폐기물발생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이 유해물질의 관리가 용이하고 폐열이용 등 경제성이 있는 규모인 연평균 1일 50톤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완화·조정하였다.

셋째, 산업단지·공장 및 관광지·관광단지 등에서 소각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동일 시·군·구 지역 안의 인근 산업단지·공장 및 관광지·관광단지 간에 공동설치·운용을 허용하였다

넷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대부분 소량으로 시설 설치·운영의 경제성이 결여되므로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대상 시설에서 제외하였다.

환경부는 금번 완화조치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르는 사업성 및 경제성이 높아지고, 산업단지 등의 조성자 및 입주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시, '환경 캐피(KEPY)' 운영

대전광역시시는 환경캐피 협약 및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환경캐피(KEPY) 위촉은 158명으로 한국전력 협력업체 2개사 직원들이다.

위촉배경은 밝고 따뜻한 사회, 함께하는 시정을 만들기 위해 시내 전역을 매일 순회하면서 전기계량기를 점검하고 고지서를 송부하는 한국전력공사 협력사 직원을 활용해 대전 『환경캐피』요원으로 위촉해 생활환경 오염행위와 생활 불편사항 신고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 '자원회수시설 운영 실시간 공개



서울시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혐오시설로만 알려진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2.15부터 홈페이지(rrf.seoul.go.kr)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시민들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가지는 막연한 불안감과 혐오감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는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양천, 노원, 강남, 마포 등 4개 자원회수시설이 해당되며 자원회수시설과 소각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와 함께 쓰레기 소각 처리공정 및 소각량·가동율 등 시설의 구체적인 운영실태와 쓰레기 소각처리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인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측정결과와 환경상영향조사 및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등을 공개한다.

특히, 굴뚝자동측정시스템(TMS)를 통해 먼지, 황산화물(SO₂), 염화수소(HCl), 질소산화물(NO_x), 일산화

탄소(CO) 등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측정결과를 공개하여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시민들이 직접 느끼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민참여마당과 시설의 공개견학을 위한 예약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직접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홈페이지 개설로 쓰레기 소각시설이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로 자리매김되고, 시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전환시킴으로써 경기도·인천시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의 활용기간의 한계성과 새로운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등 폐기물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색위,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CO₂ 줄이기 추진

서울시녹색시민위원회는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만든 환경보전 행동지침서인 “서울행동 21”을 선포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천의지를 다지며, 2006년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서울행동 21은 환경을 보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시민, 기업, 서울시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을 가지고 있는 Action Plan으로, 서울 시민의 희망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으며 미래세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서울시의 다른 시정계획과는 차별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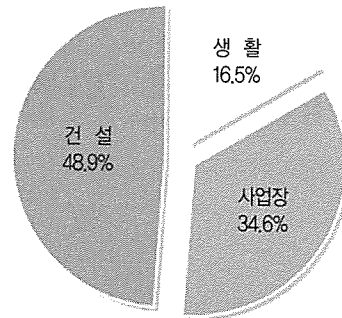
국립환경과학원, 2004년 폐기물통계 발표

국립환경과학원은 2004년도 폐기물 통계를 발표하였다.

2004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폐기물발생량은 304천톤/일로 전년대비 2.9% 증가했다.

발생된 폐기물은 재활용(76.5%), 매립(14.1%), 소각

(5.7%), 기타(3.7%)처리되었으며, 재활용이 주된 처리 방법이었다.



재활용율은 전년대비 3%(매년 1.3~11.7%)증가되었으며, 매립은 14%(매년 3.9~24%), 소각은 0.2%감소였다.

매립은 감소한 반면, 재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폐기물 관리정책의 목표인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가 정착되고 있다.

생활폐기물발생량(50,007톤/일)은 매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04년은 전년대비 1.4% 감소하여 1998년 이후 6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전국 평균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1.05kg보다 감소한 1.03kg이었으며, 우리나라의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미국(2.00kg), 영국(1.59kg), 일본(1.12kg) 및 OECD 30개국 평균 1.56kg보다 낮으며, 서울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생활쓰레기 감소요인은 서울 등 6개 시도에서의 발생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주로 서울지역에서의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전년 1.17kg에서 2004년 1.13kg으로 3.4% 감소한데 따른 영향이 크다.

감소된 생활폐기물 종류로서는 통계분류상 기타생활폐기물에 속하는 의복 등 섬유류, 위생용품과 실내개·보수로 인한 토사 잔재물 등으로 추정된다.

1인당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0.24kg/일로 2001년 이후 변화가 없다.